

북한산, 삼각산???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고양시 실랑이

“북한산은 일본 강점기 경성 제국대학 교수였던 일본인 이마니시 류에 의해 불린 일제 잔재로 삼각산이라 불러야 맞다.”

“아니다. 삼각산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3개 봉우리만 지칭한 것으로 28개 봉우리를 모두 아우르는 이름은 북한산이다.”

서울 북한산의 명칭을 두고 삼각산을 주장하는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중)와 북한산을 고수하는 경기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북구는 11월 10일 프레스 센터에서 북한산 명칭의 삼각산 개정을 위한 ‘삼각산 제이름 찾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구 총장(가천 의과대학)이 ‘왜 삼각산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가 ‘이마니시 류의 북한산설 재고’, 김주환 교수(동국대)가 ‘지형학적으로 본 삼각산’, 오경후 선임연구원(한국보건의과학연구원)이 ‘삼각산 명칭에 대한 역사적 검토’, 박경룡 회장(서울역사문화포럼)이 ‘삼각산 명칭의 정통성에 관

한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일관되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1000년 넘게 삼각산으로 불리다가 1916년 경성제국대 교수였던 일본인 이마니시 류가 총독부에 제출한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 유적 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본래 명칭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주장은 본래 북한산이 맞다는 것. 정동일 위원(고양시 문화재전문위원회)은 <삼국사기>와 <조선 왕조실록>을 근거로 “북한산 명칭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북구는 구 차원의 삼각산 개명 캠페인과 함께 조만간 명칭 변경안을 서울시지명위원회와 중앙지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도 서울시지명위원회 등을 찾아 북한산 명칭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사찰의 경우 북한산, 삼각산 명칭을 잘 이름 앞에 쓰는데 관례. ‘삼각산 ○○寺’와 ‘북한산 ○○寺’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켜 볼 일이다. 조동섭 기자

경제난·불교중흥 발원

천안 구룡사 법화경 사경대법회 1만여 명 동참 불자 가수들 ‘법화경 예찬 노래발표회’ 도 가져



11월 8일 천안 구룡사에서 열린 '법화경 사경 봉안대법회'에서 송춘희(사진 왼쪽) 등 8명의 불자가수들이 법화경 예찬 노래발표회를 갖고 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IMF관리체제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을 극복하고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대규모 사경대법회가 봉행됐다.

서울 법화경사(회주 도립)는 11월 8일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 '법화경' 사경 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사찰에서 모인 1만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입제식에 이어 <법화경> 독송, 절야정진 및 봉안법회 등으로 9일 아침까지 진행됐다.

입제식에서 도립 스님은 “법화행자들의 서원을 모아 시대와 국가의 운명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내년에는 구룡사 경내 5만여 평의 부지에 천불천탑을 봉안하고, 해외의 교포 청소년들을 위한 템

플스테이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입제식에 이어 산사음악회를 겸한 <법화경> 예찬 노래발표회'도 열렸다. 송춘희, 김국환, 남강수, 박정식, 신현돈, 김환선, 오시원, 진미령 등 8명의 불자가수들이 참가한 음악회에는 송춘희, 남강수씨 등이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한 <법화경> 예찬송이 흥겨운 국악과 가요 반주와 함께 발표됐다.

송춘희씨는 “경제난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2년만에 개사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노래들은 CD로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법화경> 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의 법회 기간 동안 구룡사 도량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문인들이 다수 참석해 가훈과 뜻 깊은 서예작품을 써주는 문화축제도 함께 열렸다.

한편, <인왕경> <금광명최승왕경>과 더불어 호국삼부경으로 불리는 <법화경>은 예로부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독송 및 사경됐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은 서예작품을 써주는 문화축제도 함께 열렸다.

한편, <인왕경> <금광명최승왕경>과 더불어 호국삼부경으로 불리는 <법화경>은 예로부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독송 및 사경됐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고대 기숙사 신축공사 문화재 영향검토 실시

개운사 문화재보호비상대책위(위원장 법해·개운사 주지)의 고려대 기숙사 신축공사장 접경 10여일 만에 성북구청이 문화재영향검토를 실시했다.

개운사 측의 요청에 의해 11월 13일 진행된 문화재영향검토에는 김성우 교수(연세대), 박경자 겸임교수(한양대),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전문가와 개운사 측, 고려대, 현대건설 등이 참석했다.

이번 문화재영향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거쳐 공사진행 여부 등이 결정된다.

김진성 기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15명에 장학금 15일 제7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이 '제3회 은정학술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화엄학림 학인스님 6명에게 학술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시상된 '은정학술상'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2006년부터 한국불교 학술 진흥을 위해 도입한 장학제도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화엄학림 스님들의 연구 결과물은 <은정학술총서>로 출판될 예정이다.

이날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윤희조 연구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와 최지연(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씨

에게 신진학자 육성 장학금 30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 불교계 단체자녀 4명, 대학원생 20명 등 모두 115명에게 1억 7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2002년부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1937~2003)과 모친의 출연 재산을 기반으로 해마다 불교인재양성 장학금 1억여 원을 전달하고 있다. 또 불교계 운영 사회복지기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내년에는 2억원 규모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며 “CMS 자동이체, 전화요금 합산방법을 이용해 지속적인 후원 사업의 활성화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02)515-9351 이상연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안방에 다 한다**

힘 들리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HAVER 김성우가 마이로봇을 추천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호법전문인력 키운다”

불교계 대표 재가단체 중 하나인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진)가 호법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조계종 포교원과 봉은사 후원으로 ‘디지털시대 호법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참가자들은 2008년 12월 5일~2009년 2월 13일 매주 금요일 △종교 현황 분석과 대응 전략 △인론의 이해와 PR전략 △사이버 홍보와 인터넷 블로거 △스피치와 성공하는 강의기법 등 총 12강 집중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탈바꿈한다.

11월 10~26일 인터넷(www.buddha21.org)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총 55명으로 참가비는 5만원이다. (8강이상 출석시 전액환급) (02)2278-3417

노덕현 기자

사찰음식은 질병치유 위한 ‘도반’ 단체 급식 중심 사찰음식 제안展 성료



사찰음식 제안展은 일반적이고 구입이 용이한 제철원료 식품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건강한 식단을 선도하고자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 문화부(문화부장 수경)는 11월 12일 12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홀에서 ‘질병 치유를 돕는 사찰음식 제안展’을 개최했다. 건강한 식단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단체 급식 식단에 녹색 신호등을 밝힌다는 취지다.

일반인 입맛에 사찰음식은 심심한 첫 인상을 남기는 것이 당연. 사찰음식과 일반 음식의 차이는 ‘오신채(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재료 고유 맛을 살려 정갈함을 나누고 본래 입맛을 되찾고자 불교계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소속 스님들에 의해 제안된 이번 행사는 심혈관질환·비만·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사찰음식이 전시됐다. 식사와 함께 어울리기 좋은 조릿대차·느릅나무차도 선보였다.

정성과 배려를 양념으로 계절에 맞는 음식이 바로 보약이라고 전하는 사찰음식. 공양과 보시, 불교정신을 통해 바른 음식문화를 일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02)2011-1770 기연숙 기자

‘2008 올해의 재가불자상’ 추천하세요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동진)는 11월 13~22일 ‘2008 올해의 재가불자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2002년 창설돼 7회째를 맞는 이번 ‘올해의재가불자상’은 모범이 되는 재가불자를 선정해 재가활동을 장려해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재가불자로서 주체적인 노력과 참여불교정신 실천으로 불교계에 바랄만한 변화를 끼친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후보자 개인이력서와 개인과 단체 추천서를 동봉하면 된다. 수상자는 2008년 11월 29일 오후 3시 참여불교재가연대 총회에서 시상 될 예정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 (02)2278-3417 노덕현 기자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5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전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암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